

2018년 주교사목서간

에코로지컬 회심(생태학적 회개)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의 호소

가톨릭 교도교구 주교
바오로 오오츠카 요시나오

◆ 머리말

저는 올해 사목교서로, 환경문제를 테마로 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회칙에서 교황님이 제시하신 「에코로지컬 회심(생태학적 회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환경문제에 관한 모든 분들의 수호성인이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과 이웃, 자연과 자기 자신과의 훌륭한 조화 속에서 사신 신비가이며 「에코로지컬 회심」의 모델이십니다. 회칙의 제목 『Laudato Si』는 성 프란치스코의 「태양의 찬가」기도에 있는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라는 의미로 오래된 이탈리아어입니다. 성인의 마음은 창조주에 대한 찬미와 자연에 대한 배려로 가득하며, 그 청빈한 삶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와 인간의 내적인 평화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에코로지컬 회심」이 필요하다고 최초로 호소한 사람은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입니다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것을 『Laudato Si』에서 4개의 「에코로지컬 회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①하느님과의 관계 회복 ②타인과의 관계 회복 ③자연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④자기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받은 교황님은 지구환경의 심각한 파괴와 위기를 우려하여, 이 문제를 지구라고 하는 공통의 집에 사는 인류 전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 ()의 숫자는 『Laudato Si』의 단락번호입니다.

1. 『Laudato Si』의 출발점

원래 에코로지(Ecology)는 「생태학」을 의미합니다만, 줄여서 에코(ECO)라고 부르며 우리들에게도 완전히 친숙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에코(ECO)라는 것만으로 인간생활과 자연환경에 관한 학문이나 운동으로서 이해되어, 「환경에 좋은」 「환경을 배려한」 「환경부담이 적은」, 더 나아가 「건강에 좋은」 「자연적이다」라는 의미로 쓰일 만큼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Laudato Si』에서는 인간을 생태계 구성원의 일원으로 생각하며, 인간과 자연환경·물질순환·사회문제등과의 상호관계, 생태환경, 자연환경을 다루는 매우 폭넓은 관점으로 에코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것은

없으므로(3~6) 인류 모두가 환경문제를 공유하고(7~9) 그 해결을 위해서 모든 분야의 사람, 철학자나 과학자, 에코로지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모든 종교의 사람들과 대화를 촉진하자고 호소하십니다(13~16).

2. 종합적 (Integral) 에코로지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Laudato Si』에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모범으로 삼는 『종합적 에코로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10). 이 종합적(integral)이라고 하는 말은 중요하므로 꼭 기억해 두십시오. 종합적(integral)이란, 원래 「통째로, 전혀 상처가 없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만, 최근에는 「완전한 것」, 「전인적」, 「통합적」 등등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Laudato Si』 원어를 번역하며 일본 주교단에서는 「종합적」이라고 번역하였지만, 본래의 의미를 남기기 위해 옆에 「Integral」라고 작게 표기하였습니다.

가톨릭교회에서 말하는 「에코로지」란 자연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는 모든 측면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전인적인 의미와 인간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 그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에코로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Laudato Si』 제 4 장을 읽어 보십시오. 그럼 이제부터 순서대로 네 개의 「에코로지컬 회심(생태적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십시오.

3.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

먼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의 회개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지어내신 창조주에 대한 영적조화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Laudato Si』 제 2 장 「창조의 복음」을 읽어 주십시오.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인류,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사이에 있는 조화를 어지럽혀 버렸습니다. 이것이 환경에 대한 인간의 죄입니다(66). 그 결과, 땅을 「지배하여」(창세기 1:28 참조), 「일구고 돌보라」(창세기 2:15)는 책임을 잘못 인식하여, 조화로웠던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렸습니다. 「땅을 지배하여라」고 하신 하느님의 의도는 지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대지의 지배권을 남용하여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억압적인 지배를 정당화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버렸습니다(67). 당연한 것입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에코로지를 생각한다면, 하느님이 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신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부정하는 사상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75). 인간에게는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밟아 뭇개는 무제한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이 인류에게 맡기신 자연에 대하여 책임을 확실하게 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에코로지컬 회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에코로지에서도 피조물인 인간은 하느님께 전면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원칙아래, 하느님께 대한 겸허함을 가지고 자연(피조물)과 마주해야 하는 영성이 꼭 필요합니다.

4. 자연과의 관계 회복

『Laudato Si』는 인간이 일으킨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회칙 전체적으로 흐릅니다. 환경문제란 인간이 생활하기 위한 자원으로 자연 환경이 재생하는 능력을 훨씬 넘는 범위(속도나 양)로 자연을 채취하고 오염시킨 결과로 생긴 자원 고갈이나 환경파괴의 문제입니다. 『Laudato Si』 제 1 장 「함께 사는 집에 일어나는 현상」(20~61)을 읽어보면, 현재 지구상에서 점점 심각해 지고 있는 환경 파괴의 실태가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그러한 문제들이 인간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활 방식, 그리고 자국 중심적인(퍼스트)의 경제 활동에 의해 복잡하고 연쇄적으로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문제, 물문제, 생물의 다양성의 감소등등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갇아야 할 「에코로지컬 부채」라고 여기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Laudato SI』 제 3 장 「생태학적 위기와 인간적 근원」에서는 생태학적인 위기를 아무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원인에 인간의 근원적 위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101). 이 인간의 근원적 위기는 인간의 목숨과 활동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핵심은 「기술지상주의」입니다. 즉, 인류가 고도로 발달한 기술을 사용하면 모든 경제 활동이나 생활 문화는 반드시 향상된다고 보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편리함이 향상된다는 기대와는 달리, 세계 각지에서 인간과 사회와 자연과의 조화는 무너지고, 인간의 생활을 위협하며,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인간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만들신 모든 피조물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각자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넘겨서는 안됩니다(84). 이 점에 관해서 교황님은 일본 주교단의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2001 년도 판)을 인용하였습니다. 「일본 주교단은 계발적인 관찰안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자신의 존재를 노래하고 있음을 알아채는 것은 하느님 사랑과 희망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85).

5. 타인과의 관계 회복

오늘날 신앙인이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은, 대지는 본질적으로 공동의 상속 재산이며 그 결실은 모든 사람의 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인정하고 있습니다(93). 이것이 공동선의 원리입니다(156~158). 그러므로 종합적(Integral)회심에는, 가난한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고려하는 사회적 관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지구의 연약함은 연관이 있으며, 빈곤문제와 환경 문제는 같은 뿌리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 세 교황님은 「하느님이 대지를 전인류에게 준 것은 인류의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며, 하느님은 그 누구도 배제하거나, 우대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더욱 엄격하게 지적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불평등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떤 이들이 자신을 다른 이들보다 더 존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참한 곤경에 빠져 거기에서 헤어 나올 방법이 없는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은 자기의 재산을 주체할 수 없어 하며, 허영에 빠져 잘난 척하고, 모든 사람이 따라한다면 지구를 파괴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쓰레기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90).

교황님의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문제를 생각할 때, 필연적으로 이웃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빈곤, 격차등과 같은 사회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91). 그러므로 종합적(Integral)에코로지를 달성하기 위해 인류가 함께 연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연대에는 다음 세대도 포함하는 세대간의 정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159~162). 따라서 「에코로지컬 회심」에서는 개인의 회심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회심도 요구됩니다(219). 제 5 장 「방향전환의 지침과 행동의 개요」에서, 여러가지 단계의

연대가 제안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진지한 대화의 필요성입니다. 사회, 경제, 정치의 모든 분야에서 성실하며 투명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책임 있는 양심을 바탕으로 한 행동 계획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6. 자기와의 관계 회복

이처럼 모든 것이 연결된다고 하는 시점에서 환경문제와 대면한다면, 인간성 쇠신없이 자연과의 관계를 쇠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올바른 인간론이 아니면 에코로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118). 현재의 생태학적 위기는 인간의 윤리적, 문화적, 영적 위기의 징후이며,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모든 관계를 풀 수 없고 자연이나 환경과의 관계를 해결한다는 시늉은 더더욱 할 수 없습니다(119).

이것과 관련하여 베네딕토 16 세 교황님은 「인간 에코로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155). 인간은 자신의 몸 바로 그것에 의해 환경과 다른 생물들과의 직접적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을 하느님께 받은 선물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전세계를 하느님 아버지로부터의 선물로서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자신의 신체를 올바르게 받아들여서, 소중히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처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의 내적조화를 회복하는 회심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성프란치스코가 알려준 오늘날의 에코로지컬 내적 회심입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기도는 하면서 현실주의나 실용주의를 핑계삼아 환경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되며, 자신의 습관을 바꾸려 하지 않는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신앙인은 「에코로지컬 회심」의 필요성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에코로지컬 교육」(213)을 추진하고 「에코로지컬 영성」을 굳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216).

7.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목표로

그리스도인은 무슨일에도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심하여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회심이란 지금까지의 그르친 삶의 태도를 단지 후회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음성에 대답하기 위해, 그 음성이 들려오는 방향으로 돌아서서 바꾼다고 하는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코로지컬 회심」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의 모든 활동을 반성하고, 종합적(Integral)에코로지에 맞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소비의 집착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맛보는 관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요구됩니다 (222). 「보다 적은 것이 보다 풍부한 것」이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절도 있는 성장과,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청빈의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조물과의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들여 우리들 사이에 살아 계시고, 우리들을 감싸 주시는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225). 그리하면 예를 들어 식사전과 식사후 기도도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게 됩니다(227). 구체적으로는 제 5 장 「방향전환의 지침과 행동의 개요」를 참고합시다.

8. 기도

회칙 『Laudato Si』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환경문제를 마주 보도록 호소하면서도,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160). 이 질문은 단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나 살기 위한 목적, 그리고 인간 활동의 의미 등,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질문과 밀접하게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에코로지컬 회심」을 신앙인으로서 깊게 하기 위해서는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마음을 향하고 삼위의 하느님께 은총과 격려를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교황님은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와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담아 이 회칙을 매듭짓습니다. 이 기도들은 『Laudato Si』에 담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생각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의 대축일

부록

『Laudato Si』에서 반복되는 10개의 테마, 5개의 시점

1	가난한 사람들과 지구의 약함 사이의 긴밀한 관계	빈곤문제와 환경문제와의 동근(同根)
2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	
3	테크놀로지 유래의 권력구조(테크노크라시(technocracy))	경제를 연류시켜 정치를 좌우한다.
4	경제와 발전을 이해하는 다른 방식들을 찾으라는 요청	
5	각각 피조물이 갖는 진정한 가치	자연속에 인간의 위치와 그 책임
6	생태의 인간적 의미	
7	기탄없고 솔직한 토론의 필요	건전한 집단적 의의결정을 지지하는 대화
8	국제적/지역적 정책의 엄숙한 책임	
9	쓰고 버리는 문화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10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으로 빚으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미하나이다.
모든 피조물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현존과 은유로 충만하나이다.
찬미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주님께게서 만물이 창조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모 마리아께 잉태되시어
이 땅에 속하시며
인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분의 영광으로
모든 피조물 안에 살아 계시나이다.
찬미받으소서!

성령님,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빛으로
이 세상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끄시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피조물과 함께하시나이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저희 마음 안에 머무르시며
저희를 선으로 이끄시나이다.
찬미받으소서!

삼위일체이신 주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의 놀라운 친교를 이루는 분이시니
모든 것이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세계의 아름다움 안에서
저희가 하느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에 대하여
저희가 찬미와 감사를 드리도록 일깨워 주소서.
저희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내적 일치를 느끼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 주소서.

사랑의 하느님,
이 세상에 저희에게 맞갖은 자리를 보여 주시어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한
하느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존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나이다.
권력과 재물을 소유한 이들을 깨우쳐 주시어
무관심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공동선에 호의적이며 약한 이들을 도와주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보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이 땅이 절규하고 있나이다.

주님,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받으소서!
아멘